

질병관리청, 경기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상황 점검 후 고위험군 접종 강조

- 경기도 의사회·지자체 설명회 및 감염취약시설 현장 방문
-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약 2.9명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은 적극적인 접종 참여 당부

질병관리청은 11월 10일(금), ▲경기도 의사회와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요양병원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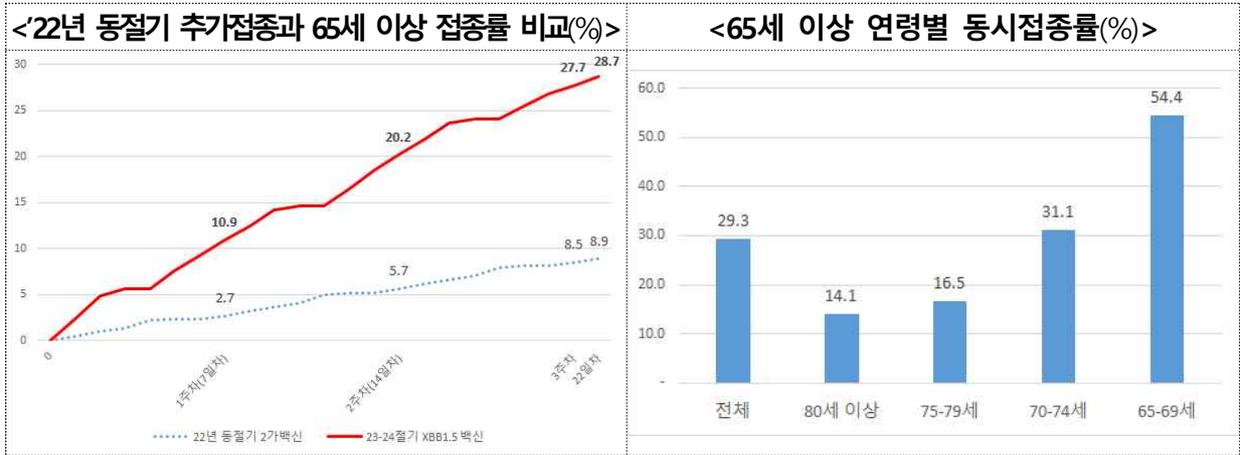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에 따라, 10월 19일(목)부터 65세 이상 고령층,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 고위험군 접종을 시작하였으며, 11월 1일(수)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 중이다.

* 요양병원·시설, 노숙인 시설, 장애인 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방역조치가 완화되고 동절기에 접어들어 따라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질병관리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의료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감염취약시설 방문접종팀 운영, 고위험군 친화적인 홍보 강화* 등 접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노인복지관·경로당 안내문 배포, 지하철 스크린도어·KTX 내 영상광고 등

한편 11월 9일 18시 기준, 65세 이상 누적 접종자는 2,807,211명, 누적 접종률은 28.7%로, 작년 동기간 접종률(8.9%)의 약 3.2배이며, 65세 이상 접종자 중 29.3%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하였다.



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은 “'23-'24절기 코로나19 접종률이 작년 대비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히며,

고위험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번 겨울철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코로나19 신규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기획과	책임자	과 장	권근용 (043-913-2320)
		담당자	사무관	김태식 (043-913-2311)